

소비자물가 다시 꿈틀…1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광주 2.3%·전남 2.4% 올라

추석 연휴에 서비스 뛰고 농산물 출하 지연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물가가 다시 2%대 상승률을 보이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긴 추석 연휴에 여행·숙박 수요가 급증하고, 잦은 비로 농산물 출하가 지연된 데다 지난해 하락 폭이 컸던 석유류의 기저 효과가 반영되면서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4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0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8%) 이후 1년 3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120.34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 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한 131.61로 집계됐다.

신선어개와 신선과실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8%, 12.7% 상승했지만 신선채소는 16.0% 하락했다.

지출 목적별로는 기타상품·서비스(4.0%), 음식·숙박(3.4%), 교통(3.1%), 교육(2.4%), 식료품·비주류음료(2.4%), 의류·신발(2.2%) 등이 지난해 보다 상승했다.

10월 긴 추석 연휴에 교통, 서비스, 숙박 등 품목 물가가 상승한 영향이라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품목 성질별로는 상품은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가스·수도가 각각 2.3%, 2.0%, 0.4%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중 쌀(21.7%), 사과(23.6%), 굴(30.1%)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잦은 비로 곡물·사과 등의 출하가 지연되면서 상승 폭을 키웠다.

서비스 부문도 전년 동월 대비 2.6% 상

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 서비스가 3.6%, 공공서비스 0.7%, 집세가 0.6% 각각 상승했다.

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18.38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전남도 지난해 7월(2.9%)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한 132.05로 집계됐다.

신선어개와 신선과실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2%, 10.3% 상승했지만 신선채소는 12.4% 하락했다.

지출 목적별로는 기타 상품·서비스(5.0%), 교통(3.9%), 식료품·비주류음료(3.1%), 음식·숙박(2.6%), 가정용품·

가사서비스(2.3%), 의류·신발(2.1%) 등이 지난해 보다 상승했다.

품목 성질별로는 상품은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축수산물, 공업제품은 각각 2.9%, 2.3% 상승했고, 전기·가스·수도는 보합을 보였다.

서비스 부문도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서비스가 3.4%, 공공서비스 0.9%, 집세가 0.6% 각각 올랐다.

한편 지난해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4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한 뒤 8월 한 차례 1.7%로 둔화했다가, 9월 다시 2.1%로 올라섰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시, 공공비축미 2513t 매입 시작

오늘 동곡동 첫 수매 26일까지 순차·쌀값 안정 기여

광주시는 5일부터 광산구 동곡동을 시작으로 2025년산 공공비축미 2513t을 매입한다.

이번 매입은 건조비 2060t과 산물비 238t이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실적에 따라 추가 물량이 배정된다. 매입은 5일부터 26일까지 21개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매입 품종은 ‘신동진’과 ‘새청무’이다.

매입 대금은 수매 직후 40kg포대 당 중간정산금 4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이후 12월 중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최종 가격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남은 대금을 지급한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본인이 아닌 타인이 생산한 벼를 출하할 경우 당해연도 매입계약이 취소된다. 또 지정 매입 품종이 아닌

다른 품종을 출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농가의 주의와 철저한 품종관리를 당부했다.

공공비축미는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비축·운용하는 것으로 비축물량 조절을 통해 시장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히 정부는 올해 급증하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5만5000t을 산지유통업체에 대여 방식으로 공급했으며, 광주시는 이 중 약 222t을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여했다.

배귀숙 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동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매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RPC광주·전남협의회, 쌀 수급 안정방안 논의. 농협 전남본부는 4일 본부 회의실에서 ‘2025년 수확기 농협RPC 광주·전남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을 비롯해 황산농협 김경태 조합장(광주·전남RPC협의회장), 보성농협 문병만 조합장(전국RPC협의회장), 방철환 양곡사업공장과 광주·전남지역 RPC농협 조합장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쌀 수급 및 수확기 전망, 정부의 수확기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향후 수급 안정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관세에도 3분기 매출 ‘선방’

1조1137억 0.1% 감소

8개분기 연속 1조 돌파

영업이익은 1085억 23%↓

금호타이어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8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4일 공시했다.

매출은 1조113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0.1% 감소했으나,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8개 분기 연속 분기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률은 9.7% 늘었다.

올해 3분기 실적은 지난 5월 발생한 광주공장 화재와 미국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 자동차 시장 침체 등에 일부 타격을 받았다.

다만 북미와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과 고인치 타이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늘리고, 완성차 업체에 신차용 타이어(OE) 공급을 확대하면서 실적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특히 신제품 출시와 지역별 전략차종 공급을 늘려 북미 지역에서는 지난해 동기(누적 기준) 대비 19.9%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유럽 9.3%·중국 2.1% 증가 등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

아울러 금호타이어는 올해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고, 독일 아우토빌트 등 유럽 자동차 전문지 테스트에서 우수 성적을 거두며 제품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타

이어 솔루션과 도심항공교통(UAM)용 에어본 타이어, 에어리스 타이어, AGT 철도차량 전용 타이어 등 미래형 타이어 기술 확장에 힘쓰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창립 이래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경신하며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 경영 체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프리미엄 제품 공급, 글로벌 유통 확대,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기 기자 aura@gwangnam.co.kr

(주)승광, 중기융합대전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평동산단 소재·자동차 등 정밀 프레스 금형 주력

광주 평동산업단지에 위치한 정밀 금형 전문기업 (주)승광(대표 김준애)이 4일 대전에서 열린 ‘2025년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기업 간 교류·협업 및 기술 융합을 통해 창출한 혁신 성과물을 전시하고 유망자를 포상하는 ‘2025년 중소기업융합대전’이 개최됐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융합대전은 ‘융합과 혁신으로 중소기업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기업 간 협력과 교류를 통한 혁신성과를 공유하고 유망자를 포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기업간 교류협업 및 기술 융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망자를 대상으로 금탑 훈장 1점, 동탑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포장 7점, 국무총리 포장 9점 등 총 20점의 정부포상이 이어졌다.

(주)승광은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해 있으며 자동차, 가전, 산업기계 부품 등에 사용되는 정밀 프레스 금형 설계와 제작이 주력이다. 설계부터 검수까지 전공정에 고급 설계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레이저 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초정밀 금형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SKT 해킹 피해자에 30만원씩 배상”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조정안…수락 여부 촉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연합뉴스

“관세협상 제외 ‘철강품목’ 대미 후속협상 재논의해야”

광양·포항·당진,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광양·포항·당진 등 국내 3개 철강도시시는 4일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대미 후속협상을 통한 철강 품목 재논의 등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6가지 안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김정완 광양 부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황침현 당진 부시장은 이번 영상회의를 통해 철강도시시는 대미 후속협상을 통한 철강 품목 재논의 촉구, 광양·당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확대 지정, 포항·광양·당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조기 지정, K-Steel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조속 제정,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의 지역 맞춤형 실효성 강화, 4차 배출권 허용 총량 완화 등 6가지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3개 지자체·기업·상공회의소가 함께 참여하는 국

철강포럼을 공동 개최해 철강산업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완 광양시 부시장은 “철강산업은

라 국가 전체 제조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번 영상회의를 통해 3개 철강도시시는 대미 후속협상을 통한 철강 품목 재논의 촉구, 광양·당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확대 지정, 포항·광양·당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조기 지정, K-Steel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조속 제정,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의 지역 맞춤형 실효성 강화, 4차 배출권 허용 총량 완화 등 6가지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3개 지자체·기업·상공회의소가 함께 참여하는 국



광양경제의 중추이자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심장이다”며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협력해 나가고 선제대응지역 지정 확정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양시는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21일 실사를 완료하고 현재 지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jin@gwangnam.co.kr

남해화학·GS칼텍스 무탄소 스팀 도입 계약

남해화학과 GS칼텍스는 최근 서울 GS칼텍스 본사에서 ‘무탄소 스팀(Carbon-free Steam) 도입·공급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글로벌 에너지전환 흐름 속에서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됐다. GS칼텍스는 황산 원료인 유황을 공급하고, 남해화학은 황산공장 등 인프라를 활용해 무탄소 스팀을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남해화학은 이번 계약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와 탈탄소화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는 2027년 무탄소 스팀 공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LNG 기반 스팀 대비 연간 약 7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